



## 이명박 서울특별시 시장 초청 간담회

이충원 이사장 적극 요청으로 이루어져  
서울지역 중소기업 발전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이충원 서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서울시이사장협의회 회장)은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영현장 애로타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와 함께 <서울시 이명박 시장 초청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의지를 중소기업인들에게 표명하고자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주최하는 <서울시 이명박 시장 초청 간담회>가 지난 2월 20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소기업지원기관장을 비롯하여 서울소재 협동조합이사장, 40여명의 인쇄문화인 등 3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쏟아졌다.

애로사항 건의에 앞서 김용구 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이명박 시장에게 중소

기업인들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경제의 기반이 될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서울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명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각 중소기업이 한 사람씩만 고용해도 엄청난 고용창출이 일어나지만 한 사람씩 해고한다면 심각한 고용대란이 일어나는데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중소기업인이 큰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해 중반기에 강남지역에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고 밝히고 상암지구에는 중앙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종합전시장이 건립되면 인근 첨단 R&D시설과 함께 시너지효과로 중소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사

항들에 대해 “업계와 중소기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 이어진 오찬에 앞서 이충원 서울시이사장협의회 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명박 시장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구 중앙회 회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건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서울시 시책에 적절히 반영되어 중소기업인들이 업계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장이 민선으로 변경된 이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처음으로 갖는 간담회로서 앞으로는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인쇄문화특화지구 선정 요청

서울인쇄조합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서울인쇄센터 지원비 증액 ▲수도권 내 인쇄관련 학과 신설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인쇄산업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형산업으로서 우리 조합원사의 60% (1120사)가 밀집되어 있는 중구 인현동 일대(일명, 인쇄문화거리)를 ‘인쇄문화특화



이명박 서울시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충원 서울시이사장협의회 회장

지구’로 선정하고 인쇄문화산업 메카단지로 집중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인쇄센터 지원비의 경우, 2004년부터 3년간 지원비가 동결(2억)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지원비는 사업비만 해당되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쇄센터 운영 인건비 등 제경비는 조합에서 지원(2명, 약 8천만원)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른 조합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향후 센터 인건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인쇄센터의 사업추진에 맞게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 서울인쇄센터 지원비에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이 존속되는 한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쇄 장비가 첨단화되고 인쇄물의 고급화로 인쇄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수도권 내에 인쇄인력 양성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로 인쇄문화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학교 내 ‘인쇄학과’를 신설하여 서울시 특화산업품목인 인쇄에 대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했다.

